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神女の 역할과 위상

채미하*

- I. 머리말
- II. 관련 기록 검토
- III. 3神女の 移住와 역할
- IV. 3神女の 追崇과 위상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탐라 건국신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본 것이다. 탐라 건국신화의 내용은 지상에서 솟아난 3신인과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혼인하여 탐라 사회가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하였고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건국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비교된다. 3신녀는 탈해와 같은 卵生은 아니었지만, 函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고 3신녀의 출현으로 수립사회였던 탐라는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되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유희와 알영은 江·井과 연결되어 있는데, 물의 기본적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 江·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성신은 사회의 변화와도 관계있다고 하였다. 한편 3신인에 대한 추숭은 16세기 이전까지는 무속적인 제사였지만, 이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후 유교적 의례로 변하였다. 그리고 3신녀가 五穀 種子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3신녀는 穀母神의 성격을 지녔고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유화나 선도산 신모처럼 神母 혹은 聖母로 추앙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과 3신녀의 추승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모)가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주제어: 탐라, 건국신화, 3신인, 3신녀, 신모

I. 머리말

탐라 건국신화는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에서 솟아난 고을나·양을나·부을나(이하 3神人)가 바다를 건너 오곡 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온 세 여인(이하 3神女)과 각각 혼인하여 分居하였다는 것이다.¹⁾ 본풀이(신화)에는 심방들이 영평 8년(65)에 고·양·부 3신인이 솟아나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²⁾ 그리고 1928년 산지향 축조 공사 때 발견된 오수전은 서기전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었다. 이 오수전은 제주도 산지향,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도 출토되었다.³⁾

이를 통해 탐라는 1세기에 존재한 국가이며, 탐라 건국신화는 제주 3성의 시조신화이기도 하면서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변형된 것이라고도 하였다.⁴⁾

-
- 1) 『瀛州誌』와 『고려사』지리지 참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탐라에 온 여성은 ‘處子三人’, ‘處女三’으로 나온다. 이것은 고려말~조선초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處子三人’, ‘處女三’을 3신녀로 사용함으로써 3신인과 대비하였다.
 - 2)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1, 202-204쪽.
 - 3)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1987, 33쪽.
 - 4) 정진희는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2006, 257-258쪽에서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로 볼 수 있으나, 지리지와 성주 고씨전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세 이본 모두 ‘오곡을 심고 구둑을 기르는 등의 ‘산업’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공통적이나, 서세문은 왕의 등극과 ‘모모’라는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두 이본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탐라 건국신화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왔다.⁵⁾ 이를 통해 3신녀의 도래와 3신인과의 혼인, 그로 말미암은 탐라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신녀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비·시조모와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한다.⁶⁾

이를 위해 우선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인과 3신녀에 대한 기록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3신인과의 혼인으로 탐라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 3신녀의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3신녀의 위상은 3신녀에 대한 추승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가 한국 고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기록 검토

탐라 건국신화가 처음 보이는 문헌은 『瀛州誌』(저자 미상, 고려말 또는 조선초 발간 추정)로, 이것은 『星主高氏傳』(鄭以吾, 1416년(태종 32))과 「序世文」(高得宗, 1450년(세종 32)), 『高氏世譜』 등과 서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사』지리지(양성지 편찬, 1451년(문종 1))의 탐라 건국신화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단종 2)), 『동국통감』(서거정 편찬, 1485년(성종 16)),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홍언필 증보, 1530년(중종 26)), 『탐라지』(이원진 저, 1653년(효종 4)) 등에도 보인다.⁷⁾ 전자는 영주지계, 후자는 고려사계라고

-
- 5)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정진희, 앞의 논문, 2006, 252-253쪽 및 이하의 논문 참고.
 - 6)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2006; 나희라,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2009; 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2010;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용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2012; 채미하,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 『한국사학보』 55, 2014; 채미하, 「한국 고대 神母와 國家祭儀-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등
 - 7) 탐라신화의 이본과 관련해서는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선청어문-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8, 1989, 72쪽 및 79-80쪽;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48-53쪽;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한다. 『瀛州誌』와 『고려사』지리지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 1) ① 瀛州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神人이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솟아 나왔는데, 모흥혈이라 한다. 長은 高乙那, 次는 良乙那, 三은 夫乙那라 하였다.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과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하나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②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목함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삼인은 내려가 이를 열어 본즉 속에는 새알 모양인 옥함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 16세요, 용모는 품위 높고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금당의 해안가에 내려 놓았다. ③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길, 나는 동해의 벽랑국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함에도 이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 나며지 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에 오르시고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주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 세 사람이 절악에 내려와 있어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어하고 있어 신더러 명하여 세 공주를 그 곳으로 데려가라 하여 왔으니 좋도록 짝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홀연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④ 세 신인은 곧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니 나이 차례로 그녀들과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일도라 하였고, 양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라 하였고, 부을나가 사는 곳은 제삼도라 하였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번성하여 부유하게 되어 드디어 인간 세계를 이룩하여 놓았다.⁹⁾

14, 1994; 정진희, 앞의 논문, 2006.

8) 현용준은 앞의 논문, 1983, 57쪽에서 3신인의 출생과 생활, 3신녀의 표착과 혼인, 所居地 선정과 정착건국으로 나누었으나, 필자는 현용준의 두 번째 내용을 3신녀의 표착과 사자의 전언으로 나누고 3신인과 3신녀의 혼인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보았다.

9) 『瀛州誌』奎章閣藏, 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2-4쪽, ① 瀛州 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 從地溶峯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② 一日登漢孛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2) 耽羅縣은 全羅道 南海에 있다. 古記에서 말하기를 “① 太初에 사람이 없었는데, 세 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으니(그 主山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毛輿이라고 한다. 이곳이 그 땅이다), 땅이는 良乙那라고 하였고, 그 다음을 高乙那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夫乙那라고 했다.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②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또 돌 상자가 있었으며,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 使者 한 사람이 따라 나왔다. 돌 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와 송아지[駒犢]들과 五穀의 종자가 나왔다. ③ 사자가 ‘우리는 日本國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西海의 中嶽에 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분부하여 세 딸을 모시고 여기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大業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④ 세 사람이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나누어 아내로 삼고서,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양을나가 사는 곳을 第一都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第二都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第三都라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하고 또 가축을 길러 나날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¹⁰⁾

위의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인에 대해 『영주지』에는 장자가 고을나로

有一冠帶紫衣使者 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名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③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朧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知 ④ 三神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

- 10) 『고려사』 57, 지11 지리2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①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其主山北麓 有穴曰毛輿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②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③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 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④ 三人 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

되어 있으나, 『고려사』지리지에는 양을나로 나온다. 3신인과 혼인한 3신녀도 『영주지』에는 동해 벽랑국 임금의 세 딸로,¹¹⁾ 『고려사』지리지에는 일본 국왕의 세 딸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3신인과 3신녀는 기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¹²⁾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인은 땅에서 솟아 올랐고(從地浴簞) 3신녀는 바다에서 나무 상자(紫泥封木函)를 타고 이주하였다고 한다.

한국 고대 건국의 주인공인 시조는 주로 卵生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탄강한 이주세력이며, 그 배우자는 토착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 속의 시조와 그 시조비(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

國	시조(부)(출자 등)	시조모(비)
고조선	환웅(天) → 단군	웅녀
고구려	해모수(天) → 주몽(卵生)	하백→유화(水)
대가야	이비가지(天)	정견모주(山)
신라		서술산 신모(山)
	혁거세(天, 卵生)	알영(井)
	탈해(海, 卵生·계)	
	알지(天·계)	
금관가야	수로(天, 卵生·계)	허황옥(海)
백제	온조	소서노
탐라	3신인(地)	3신녀(海)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는 天降(탈해 제외)·卵生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는 달리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인은 땅에서 솟아나온다. 동남아·남중국·沖繩의 경우 남녀 2신이 땅에서 출현한다. 이로 볼 때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은 제주의 사회·문화 배경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11) 『성주고씨전』에는 일본국의 일곱 딸 중 세 명으로 나온다.
 12) 영주지계와 고려사계에 보이는 기록의 차이는 당시의 이태올로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3)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71-76쪽.

그리고 3신인은 산으로 내려왔다고도 한다. 즉 『영주지』에는 ‘中有絶嶽降神子三人’이라 하였고 『고려사』에는 “西海中嶽 降神子三人”이라고 하였다. 『영주지』를 보면 그 산은 한라산으로, 한라산의 영험과 3신인의 출현은 관계있지 않을까 한다.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생각하였다. 즉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산은 天祭를 지내는 제사장소이기도 하였다.¹⁴⁾

그렇다면 3신인은 땅 뿐만 아니라 하늘과도 연결된 존재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의 6촌장 신화가 관심을 끄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6촌(부)의 시조들은 모두 峰 또는 山에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연은 6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按上文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고 하였다. 고조선 건국신화에서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정상 神檀樹에 내려와 神市를 펼치는데,¹⁵⁾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과 같은 천손강림의 신화를 6촌장들은 지니고 있었다.¹⁶⁾ 특히 무산대수촌의 대수(촌)는 신단수를 생각하게도 하는데, 신단수는 천·지·지하계의 접합점에 있는 성역이고 만물이 생성되며 太儀를 재현하는 聖壇을 상징한다고 한다.¹⁷⁾

3신인은 『영주지』를 보면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라 하였고, 『고려사』에는 ‘遊獵荒僻 皮衣肉食’이라 하여, 가죽옷과 육식을 하면서 사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온 3신녀가 망아지·송아지와 오곡 종자(駒犢五穀種)를 가지고 와서 3신인과 혼인함으로써 탐라 사회는 처음으로 오

14) 『서경』 순전, “至于堡宗柴”.

15) 『삼국유사』 1, 기이 2, 고조선,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16) 6촌장의 천신하강 내용은 고조선에서 이주해 온 천신족으로서 자부심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조동일, 『한국문화통사』, 지식산업사, 1982, 9쪽), 고조선계 유이민이 경주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신화를 꾸몄는데, 이주민이기 때문에 천신하강 구조로 하였다는 해석(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62쪽), 고조선 유민들이 진한 지역에 밀려와 정착하면서 북방에서 가져온 자기 신화를 되살려낸 것이라는 해석(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37-138쪽) 등이 있다. 한편 6촌장의 천강설화는 후대에 꾸며진 것이라고 한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 598쪽).

17) 황쾌강,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1988, 78쪽. 이상은 재미하, 「신라의 6촌과 산약제사」, 『신라사학보』 23, 2011, 93쪽.

곡을 파종하고 가축을 길러 사회가 부유해졌다(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고 한다. 즉 『영주지』에는 ‘太初無人物’에서 3신인이 등장하여 수렵사회가 되었고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3신인과 혼인함으로써 ‘遂成人界’하였다.¹⁸⁾

이로 볼 때 3신인이 등장한 것은 한국 고대 건국 시조가 등장하던 사회보다 앞선 사회였으며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촌¹⁹⁾의 6촌장들이 關川 언덕 위에 모여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움을 정”하는 것을 의논하였고 새로운 세력인 혁거세를 받들어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²⁰⁾과 비교된다.

3신녀는 『영주지』를 보면 자주빛 木函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왔으며 (玉函形如鳥卵), 『고려사』에는 자주빛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왔다고 한다. 3신녀가 함에 담겨 바다를 건너 탐라에 왔다는 것은 동남아와 沖繩, 가야의 허황옥과 신라의 탈해신화에서도 알 수 있다.²¹⁾ 그리고 『영주지』의 옥함은 鳥卵형인데, 이것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가락국의 김수로, 신라의 혁거세·탈해·알지, 고구려 주몽의 난생과 같은 난생형 신화를 차용하여 변이한 것이라고 한다.²²⁾ 이와 같은 3신녀의 출자처를 『영주지』에서는 ‘벽랑국, 『고

18) 제주의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여신의 도래는 가야국의 허왕후 도래와 비견되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고, 새로운 문명의 수입과정을 보여 주는 문화적 교섭의 징후라 하겠다(이상은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9-11쪽).

19) 6촌의 시회적 성격을 혈연과 지연으로 결합된 씨족사회(이병도, 앞의 책, 1976, 600쪽; 김병곤, 「사로 6촌의 출자와 촌장의 사회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137쪽;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로 계급(Rank)을 가진 혈연집단으로서의 氏族(Clan) 社會인 酋長社會(Chiefdom)(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17-47쪽), 촌락공동체인 소연맹국으로 보기도 한다(김두진, 「신라 6촌장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108쪽).

20) 채미하, 앞의 논문, 2011, 88~89쪽.

21)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80쪽.

22)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4쪽;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145쪽에서 도래신화는 천강신화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려사』에서는 ‘일본국’이라 하였으며²³⁾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영주지』에는 ‘金塘之岸’(금당포, 조천)으로, 『고려사』에는 ‘東海濱’으로 나오며 20세기 문헌에는 온평리(열운리)로 나온다.²⁴⁾

『영주지』를 보면 “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하였고 3신인은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3신녀를 발견하고 맞이한 것은 3신인으로, 이것은 가락국의 수로가 허황후가 오는 것은 미리 알고 유천간과 신귀간을 보내 기다리게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신라 혁거세는 6촌의 시조들이, 가락국의 수로는 9간이 맞이하였다. 특히 가락국의 9간은 3월 계육일에 구지봉에 모여 수로왕을 맞는 제의를 주관하였다.²⁵⁾ 신라에 등장한 탈해를 맞이한 것은 아진의선이었으며 알지는 탈해가 발견하였다.

3신녀는 사자와 함께 왔는데, 『영주지』에는 관대를 하고 자주빛 옷을 입은(冠帶紫衣) 사자가 3신녀와 혼인을 하고 대업을 이루라고 하였다(～將欲開國而無配匹～以成大業). 『고려사』에는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紅帶紫衣) 사자가 3신녀를 짝을 삼고 대업을 이루라고 하였다(宜作配 以成大業). 신라 혁거세의 출생에 등장하는 백마는 성스러운 인물의 降臨을 알리는 사자 즉 天馬로,²⁶⁾ 이후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영주지』의 사자 역시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3신녀의 신성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3신인이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업·개국·건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신인과 3신녀의 혼인은 건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허황옥이 가락국에 온 이유와 비교되는데, 허황옥 부모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 ‘수로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위에 올랐으나 새롭게 나라를 다스림에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 짝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허황옥

23) 벽랑국과 일본국의 실재에 대해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1-62쪽; 허남춘,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27, 2005, 6-7쪽.

24) 3신녀의 표착지와 관련해서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4-67쪽;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4-5쪽.

25)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26) 혁거세의 출생에 말이 관련되는 점에서 박씨족을 기마술에 익숙한 北方 유이민 계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철준, 「신라 상고세계와 그 기원」,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72-73쪽).

의 경우는 가락국이 건국된 이후에 등장한다. 이것은 혁거세에 의해 사로국이 건국되고 알영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참고된다.

3신인과 3신녀의 혼인은 나이 순서에 따라 하였는데(年次分娶), 『영주지』에서는 3신인이 ‘卽以潔牲告天’,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시조와 시조비의 혼인은 혁거세와 알영, 수로와 허황옥이 있다. 수로는 구간 등을 보내 허황옥을 대궐 안으로 들이려 하였으나, 허황옥은 山靈에게 비단바지를 바친 후에 임시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²⁷⁾

혼인 후 3신인과 3신녀는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分居하였다고 한다. 좌정처를 정하기 위한 활쏘기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뽕개 던지기’로, 이것은 신화적 요소를 띠고 있다.²⁸⁾ 이와 관련해서 주몽이 皇天과 后土에게 빌고 활로 강물을 쳐서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도록 한 것과 송양과의 대결에서 활로 승부하여 승리한 것도 참고되는데, 주몽이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 쏘 그 능력을 인정받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탐라 건국신화에서 활을 쏘아 하늘의 뜻을 묻고 거주지를 정한다는 것은 ‘활로 쏘 하늘을 뜻을 묻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음’이라는 의미이다.²⁹⁾

3신녀가 3신인과 혼인한 후 탐라사회는 수렵사회에서 농경, 목축사회로 변한다. 이것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락국의 수로가 허황옥과 혼인 후 관직명과 신하들의 이름을 고치면서 사회변화를 꾀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영주지』와 『고려사』에 보이는 3신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주지』와 『고려사』의 3신녀 관련 내용

	영주지系	고려사系
3신녀	동해 벽랑국의 왕녀->처자로 표현	일본국의 왕녀->처녀로 표현
도래한 곳	金塘之岸 : 금당(조천리)	東海濱 : 열운리(은평리)
도래 방법	자주빛 木函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오다.	자주빛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오다

27)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466쪽.

28)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9-70쪽.

29)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145-147쪽.

휴대물	망아지, 송아지, 오곡종자	망아지, 송아지, 오곡종자
사자의 전언	삼신녀를 배필삼아 건국하라 傳言하고 구름을 타고 가다	삼신녀를 배필삼아 건국하라 傳言하고 구름을 타고 가다
혼인의 모습	나이 순서에 따라 3신인과 혼인	나이 순서에 따라 3신인과 혼인
혼인 후 사회 변화	오곡을 파종하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라 부유해졌다.	오곡을 파종하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라 부유해졌다.

Ⅲ. 3神女の 移住와 역할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같으며 함에 담겨 온 것은 탈해 신화와 비교된다. 우선 허황옥은 आयुता국의 공주로 후한 광무제 건무 24년(48)에 배를 타고 김해 가락국에 도착하였고,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이를 미리 알고 그녀를 기다려 왕비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가락국에 온 것은 상제의 명에 따른 것으로, 부모의 꿈에 수로가 나라를 다스림에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공주를 보내라고 명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탈해는 어머니가 임신한지 7년 만에 큰 알로 태어났는데,³⁰⁾ 부왕이 난생을 상스럽지 못한 일로 여기자 어머니가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껍질 속에 넣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고 한다.³¹⁾

신라의 선도산 신모도 바다를 통해 이주하였다. 『삼국유사』를 보면 선도산 신모는 중국 帝室의 딸인 사소로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다 마침내 서연산에 와서 살고 地仙이 되었다고 한다.³²⁾ 이러한 선도산 신모에 대해 政和 연간(1111~1117)에 송에 간 김부식은 佑神館의 선녀상이 “옛날 帝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워 辰韓

30)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에는 10개월이라고 하였다.

31) 『삼국유사』1, 기이 2, 제4탈해왕 ; 『삼국사기』1, 신라본기 1, 탈해이사금 즉위년.

32) 『삼국유사』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신라 시조 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산 신모는 본래 도교의 女仙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선도산에 정착한 이른바 도래신(정재서,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2009, 16-19쪽)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선주는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13-15쪽에서 시조묘 전승에서 시조묘와 관련이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닌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으로 보았다.

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海東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제의 딸은 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仙桃山에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像이다.”라는 설명을 송 館伴學士 王黼에게 들었다.³³⁾ 그리고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의 수로가 구지봉에 내려왔다고 하였지만, 어산불영조에는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왔는데, 그가 수로왕이라고 하였다.³⁴⁾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혁거세·주몽·탈해·수로 등은 난생으로 태어나는데, 알은 영웅의 기이한 탄생과 관련 있으며 생명의 원천 혹은 태양을 상징한다.³⁵⁾ 그리고 궤짝은 존재의 변화와 공간적 이동의 수단으로 적용된다.³⁶⁾ 3신녀는 탈해와 같은 난생은 아니었지만, 함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다. 바다는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계와의 경계 공간으로 기능한다.³⁷⁾

이와 같이 3신녀와 허황옥, 선도산 신모는 바다를 건너온 이주자이다. 바다는 인간세계의 수평축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이며, 분리와 경계를 의미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공간이다.³⁸⁾ 이와 관련해서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강·천·정도 관심을 끈다. 주몽신화에서 하백의 딸이 웅심산 아래 압록강에서 살며, 여기서 천제의 아들을 만났다고 한다.³⁹⁾ 하백은 황하의 水神으로 殷商 이래로 주나라 말엽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받던 신격이라고 한다.⁴⁰⁾ 『晏子春秋』 內篇諫上에서는

33) 『삼국사기』12, 신라본기 12, 경순왕 9년 “論曰 … 1)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2)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

34) 『삼국사기』3, 탐상4, 魚山佛影, “…昔天卵下于海邊 作人御國 卽首露王…”.

35) 양성필, 「난생신화의 궤짝신화의 상관성 고찰」, 『탐라문화』 35, 2009, 93쪽.

36) 양성필, 위의 논문, 2009, 95-96쪽, 101-102쪽.

37) 탈해가 추방이라면 3신녀와 허황옥이 지상에서 바다로 향한 것은 자발적인 행위로,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2012, 325-326쪽).

38) 오세정, 앞의 논문, 2012, 330-331쪽.

39) 『삼국유사』1, 기이 1, 고구려, “…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 私之而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歸居于此 …”.

“하백은 물을 나라로 하고 물고기와 자라 등을 백성으로 하였다”⁴¹⁾라고 하여 魚鼈의 통치자로, 『한비자』 內儲說上에는 하백을 대어로, 『搜神記』에서는 하백을 鰓이라고 하듯이 하백은 물고기의 통치자나 혹은 물고기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⁴²⁾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할 때 어별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다음은 알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 1) ① 봄 정월, 용이 闕英井에서 나와 右脇에서 女兒를 낳았다. 老嫗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② 성장함에 德容이 있었다. 시조가 듣고 맞아서 妃로 삼았다. 賢行이 있고 內輔가 能하였다. ③ 이 때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렀다.⁴³⁾

- 2) ① 이 날, 沙梁里的 알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雞籠이 나타나 左脇에서 童女(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았다. ② 姿容이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여 月城의 北川에서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그 川 이름을 撥川이라 했다.⁴⁴⁾

위의 내용을 보면 알영정(아리영정)에서 용(계룡)이 나타나 알영을 낳았는데, 알영은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 목욕시키자 떨어졌다고 한다.

정·천은 신라 혁거세 출생과도 관련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나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이 보

40) 袁軻, 『中國神話通考』, 成都:巴蜀書社, 1993, 230쪽;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259쪽. 宣釘奎는「하백신화고」, 『중국문학연구』 10, 2004, 7쪽에서 “하백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인 河神이라는 의미와 황하의 신, 하수를 관리하고 관장한다는 현실세계의 질서가 신화에 투영된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41) “河伯以水爲國 以爲魚鼈爲民”

42) 宣釘奎, 앞의 논문, 2004, 13쪽.

43)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 “①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 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②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44)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① 是日 沙梁里闕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雞籠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而剖其腹得之) ② 姿容殊麗 然而唇似雞嘴 將浴於 月城北川 其齒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는 “양산 나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혁거세는 『삼국유사』를 보면 형용이 단정하였으며 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고 하였다. 탈해는 ‘葬疏川丘中’, ‘水葬未召疏井丘中’ 했다고 하여, 사후에는 정·천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탐라 건국신화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바다, 강·천·정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는데, 이들 여성은 시조나 시조의 부와 혼인해 시조비 내지는 시조모가 되었다. 탐라의 3신녀는 나이 순대로 3신인과 혼인하여 후술되듯이 탐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허황옥은 가락국으로 와서 수로왕의 비가 되었고 도산씨가 하나라를 돕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의 요씨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⁴⁵⁾ 알영은 성장 후 혁거세와 혼인하여 혁거세 재위 기간 동안 그를 보필하였다.⁴⁶⁾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화는 하백의 딸로 해모수와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이후 주몽에게 弓矢를 만들어 주었으며 기마하기에 좋은 말을 가려내어 키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종자와 보리종자를 보내주었다.⁴⁷⁾ 신라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는 선도산 신모에서 찾고 있는데, 선도산 신모는 혁거세를 낳았고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낳은 알영을 선도산 신모의 현신이라고 하였다.⁴⁸⁾

한편 한국고대 건국신화에서 문명권 중심부에서 이주한 남성은 토착세력인 여성과 혼인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 건설은 주로 남성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다를 건너 이주한 탈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탈해는 토함산에 오른 뒤에 호공의 집에 숲과 숲들을

45)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 “...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月 陽之有陰 其功也塗山翼夏 唐媛興嬌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

46) 이와 관련해서 혁거세 17년(서기전 41)에 혁거세가 육부를 巡撫할 때 알영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 것도 참고된다.

47)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된 문헌과 그 연구성과는 재미하, 앞의 논문, 2006 참고.

48)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모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여 『삼국사기』와는 달리 혁거세와 알영이 남매로 나온다.

감추어 두었다가 위계로 호공의 집을 빼앗는데,⁴⁹⁾ 이 솥과 솥들은 바로 철을 다루는 야장의 도구이다. 그러나 탈해는 박혁거세보다 늦게 신라에 들어왔지만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제4대 왕에 오른다.

그런데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도래한 인물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왕이 되지 않고 왕후가 되어 탐라국에 변화를 가져온다. 즉 탐라 건국신화에는 3신녀의 출현으로 수렵사회였던 탐라가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했다고 한다. 오곡종자가 선진문명이라는 것은 유희가 주몽에게 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⁵⁰⁾ 3신녀가 가지고 온 오곡 종자뿐만 아니라 망아지·송아지는 농경에 필요한 동력이었다. 이로 볼 때 3신녀는 바다 건너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온 인물들이며, 이들의 이주로 탐라는 농경과 목축 사회로 변하였다. 이것은 3신녀의 출신지인 ‘벽랑국’, ‘일본국’이 당시 탐라 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다. 3신녀와 함께 온 사신이 구름을 타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바다는 강, 정과 함께 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생명 자체도 근원적으로는 물에서 발생한 것이다.⁵¹⁾ 따라서 井, 淵, 泉(川), 江(河), 海의 물은 여성적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것의 변화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여겨졌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여성 이주자 중 허황옥은 錦繡綾羅·衣裳正段·金銀珠玉·瓊玖服·琬器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은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가지고 온 오곡종자 등과 같은 선진 문화의 속성을 띤다. 그리고 허황

49) 『삼국유사』1, 기이 2, 제4탈해왕.

50)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82~84쪽 및 85~86쪽;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앞의 논문, 2005, 6쪽.

51) 『管子』 20, 刑勢解 64, “淵者 衆物之所生也 能深而不涸 則沈玉至 主者人之所仰而生也 能寬裕純厚 而不苛伎 則民人附 父母者子婦之所受 教也 能慈仁教訓 而不失理 則子婦孝 臣下者 主之所用也 能盡力事上 則當於主 子婦者親之所以安也 能孝悌順親 則當於親 故淵涸而無水 則沈玉不至 主苛而無厚 則萬民不附 父母暴而無恩 則子婦不親 臣下隨而不忠 則卑辱困窮 子婦不安親 則禍憂至 故淵不涸 則所欲者至 涸則不至 故曰淵深而不涸 則沈玉極”.

52)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1994, 76-77쪽.

옥이 탄 배가 망산도로 들어올 때 붉은 빛의 돛(緋帆)을 높이 걸고 적황색 빛의 깃발(茜旗)을 달고 있는데, 이는 비단과 연관되는 신성상징일 것으로 추정되며⁵³⁾ 비단의 직조문화를 가지고 도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허황옥은 가락국의 불교 전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⁵⁴⁾

신라의 시조모인 선도산 신모는 일찍이 여러 天仙을 시켜 비단을 짜서 붉은 물을 들이고 朝衣를 만들어 지아비에게 주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비로소 신성한 증험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선도산 신모의 ‘織羅’ 또한 직조문화를 가지고 이주한 집단의 의미를 지닌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에서도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떠나자 일월이 빛을 잃었고, 세오녀가 짠 비단(細絹)으로 일월이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을 ‘日月之精’으로 여겼고, 祭天한 곳을 영일현이라 했다고 한다.⁵⁵⁾ 이 설화는 직조술의 渡日을 상징한다.⁵⁶⁾

이상에서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선도산 신모는 바다와 관련된 여성이주자로, 시조의 조력자인 시조비나 시조모가 되어 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백제 건국신화에 나오는 소서노는 시조비이자 시조모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의 어머니 소서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 처음에는 북부여의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두 부여 아들을 데리고 졸본에 와서 살았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졸본에 오자 소서노는 주몽의 비가 되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다. 이후 주몽이 부여에서 온 유리를 태자로 삼자 소서노는 비류·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⁵⁷⁾

시조모인 웅녀와 유화, 정견모주는 천신의 배우자로 시조를 낳고 기르고 시조를 도와 건국에 일조하였다. 고조선 건국신화에 보이는 웅녀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곰이었으나 신의 아들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어 환웅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여 인간으로

53)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7, 1996, 12쪽. 그는 붉은 깃과 꼭두서니빛이 신성상징이라고 했고 이 돛과 깃발도 비단으로 만들어진 직조문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54) 『삼국유사』 3, 탐상4, 金官城婆娑石塔.

55) 『삼국유사』 1, 기이2, 延鳥郎細鳥女.

56) 조동일, 「시조도래 건국의 중세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화』, 지식산업사, 1999, 96-141쪽. 이상은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9-10쪽.

57)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즉위년.

변한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았다.⁵⁸⁾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나온 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며 바다를 건너온 허왕후와 결혼함으로써 건국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⁹⁾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정견모주가 천신에 감응되어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치원이 쓴 釋利貞傳을 인용하여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한다.

시조모와 시조비의 선후 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집단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여성에 있다는 시조모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계 중심 신화 이전에 모계 중심으로 서술하는 신화적 전통에 있었다고 한다.⁶⁰⁾ 즉 시조모에 대한 전승은 시조와 시조비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서노 관련 전승은 부계출계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⁶¹⁾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는 3신인과 혼인하여 시조비가 된다. 바다를 통해 건너온 이들은 가지고 온 선진문물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⁶²⁾ 즉 3신인은 사냥과 수렵생활을 하다가 바다 너머에서 오곡의 씨·송아지·망아지 등을 가지고 온 3신녀와 혼인하여 탐라 사회는 수렵사회에서 농경, 목축을 하는 사회로 전이된다. 허황옥, 선도산 신모의 직조술도 고대국가 건설의 중요한 문화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3신녀가 가지고 온 것과는 구별되는데, 이들이 이주한 곳이 이미 농경문화를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때문에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 이주한 여성 이주자는 직조술을 지니고 들어와 새로운 문물을 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신녀는 수렵을 주 산업으로 하던 사회에 농경과 목축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

58) 『삼국유사』 1, 기이 2, 고조선.

59)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60) 조현실, 앞의 책, 2003, 257-258쪽. 천혜숙은 선도산 신모 신화의 ‘不夫而孕’ 요소는 모권제 또는 모계제의 흔적이라고 하였다(‘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2002, 23-24쪽).

61) 천혜숙, 위의 논문, 2002, 28쪽.

62) 오세정, 앞의 논문, 2012, 321쪽에서 우리 신화에서 바다는 선진문물, 혹은 선진문화의 수용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많다고 하면서 가락국신화나 삼성신화에서는 바다 건너 등강한 이인들을 통해 지상의 인간세계에 선진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설할 수 있었다. 『영주지』의 ‘遂成人界’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IV. 3神女の 追崇과 위상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이주자는 선진 문화와 기술을 토대⁶³⁾로 지배자(시조) 혹은 지배자의 배우자(시조비)가 되었다. 이것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모)는 死後에 추송되어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시조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제사지를 보면 고구려의 시조묘에 국왕들의 배알이 8차례 확인된다.⁶⁴⁾ 이러한 시조묘 제사의 주신은 주몽이라고 한다.⁶⁵⁾ 후술되듯이 태후묘는 동명왕의 어머니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 건립되었다. 반면 시조묘는 신대왕대 처음으로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지낸 점⁶⁶⁾으로 미루어 그 이전 어느 시기에 건립되지 않았을까 한다. 태조왕대 주몽을 국조로 하는 의식이 성립되었고 이후 시조묘가 건립되었다는 견해⁶⁷⁾는 참고할 만하다.⁶⁸⁾

백제 한성-웅진시기 동명묘 제사의 대상은 범부여계의 조상인 동명이었으나, 사비시기 구태묘는 왕실의 직계조상으로 여겨진 구태를 제사지내는 것으로,⁶⁹⁾ 구태묘를 중국적인 종묘로 파악하고 있다.⁷⁰⁾ 즉 사비시기 구태묘 제사

63) 윤철중, 「탈해신화의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7, 88쪽.

64) 신대왕 4년(168) 9월, 고국천왕 2년(180) 9월, 동천왕 2년(228) 2월, 중천왕 13년(260) 9월, 고국원왕 2년(332) 2월, 안장왕 3년(521) 4월, 평안왕 2년(560) 2월, 건무왕 2년(619) 4월이 그것이다.

65)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説-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109쪽.

66) 신대왕과 고국천왕대의 시조묘 기사는 허구라는 견해가 있다(田中通彦, 「高句麗の信仰と祭祀」,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念論集 歴史における民衆と文化』(圖書刊行會), 1982, 734쪽; 武田幸男, 「始祖廟記事と高句麗王系」, 『東方學會立50周年記念東方學論集』(東方學會), 1997, 817-820쪽).

67) 시조로서 주몽에 대한 의식과 숭배가 태조왕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주몽묘 건립은 태조왕대부터 차대왕에 이르는 기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차대왕대에 반태조왕 세력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으므로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한 친태조왕 세력이 집권하자 시조묘 봉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80-84쪽).

68)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논문, 344-345쪽.

의 대상인 구태는 백제 왕실의 시조이고 구태묘는 도성 내에 세우고 廟祠를 올린 종교적 성격으로 보기도 하고⁷¹⁾ 육후로부터 종교제를 배워 부여왕 위 구태가 始國者로 설정되고 동시에 구태묘가 종묘로 성립되었다는 견해⁷²⁾도 있다.⁷³⁾

신라 남해왕 3년(6)에 설치된 시조묘⁷⁴⁾에는 박씨집단의 族祖인 혁거세를 모셨다가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제천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는 국조가 되었고,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다.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된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로,⁷⁵⁾ 혁거세는 쏬 국가적 시조왕의 성격을 지녔다. 이와 같이 시조묘와 신궁에서 혁거세가 그 제사의 주신이었지만, 신라 중대에 오묘제⁷⁶⁾가 성립되면서 국조인 혁거세를 모신 신궁제사는 김성시조를 모시는 오묘제 보다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⁷⁷⁾ 석씨집단의 족조인 탈해의 소상은 궐 안에 있다가 동악에 안치되는데, 그 시기는 문무왕 20년(680)으로 나온다.⁷⁸⁾ 동악은 토함산으로 탈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이며 고려시대에는 동악대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⁷⁹⁾ 이로 볼 때 시조신이었던 탈해는 신라 중대 이후 산신으로 그 신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⁰⁾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의 지중용출은 탄생의 의미인 동시에 곡신부활의

69)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0, 23-24쪽;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연구」, 전남대학교사학과박사학위논문, 1990, 45쪽.

70) 이와 관련해서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 10, 전남대, 1981, 73~76쪽; 박현숙,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검토」, 『선사와 고대』 10, 1998, 87쪽;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 9, 2005, 48-49쪽.

71) 유원재, 『중국정사 백제전 연구(중보판)』, 학연문화사, 1995, 98-100쪽.

72) 김병근, 「중국 사서에 나타난 백제 시조관과 시국자 구태」,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178-187쪽.

73) 이상은 채미하, 「백제의 산천제사와 그 정비」, 『동국사학』 48, 2010, 48-49쪽.

74)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남해차차웅 3년.

75) 『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9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76)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77)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앞의 논문, 2014 참고.

78)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79)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삼국유사』 1, 왕력 1, 제4탈해이질금.

80) 채미하, 앞의 논문, 2014, 186-187쪽 및 앞의 논문, 2016, 21쪽.

의미를 지니며 건국시조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였다.⁸¹⁾ 이와 같은 3신인에 대한 제사는 ‘처음에는 사당을 세우고 향사한 일이 없었으며 다만 廣壤堂이 있어 무당들이 빌고 굿하는 장소였는데, 嘉靖 5년 丙戌(중종 21년, 1526)에 목사 李壽童이 비로소 모흥혈 옆에 단을 쌓고 三乙那의 자손으로 매년 仲冬에 제향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⁸²⁾ 광양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 38 전라도 제주목 사묘조에 나온다.⁸³⁾ 이로 볼 때 3신인에 대한 제사는 16세기 이전까지는 광양당에서 무격에 의해 무속적인 제사로 행해졌지만, 이후 유교식 제사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⁸⁴⁾ 그리고 한라산이 3신인의 탄생처였다고 한다면 모흥혈은 降神의 의례를 거행하던 제의장소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⁸⁵⁾ 삼성혈에서 매해 穴祭(乾始祭)를 지내는데, 이 의례 방식은 地面으로 통한 구멍 곧 靉을 열어 神을 청하고, 제물을 그 구멍으로 地面에 통하게 넣어 신을 대접하고 신을 구멍을 통하여 地中으로 보내어 뚜껑을 닫는 것이다.⁸⁶⁾

한편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시조비 중 허황옥은 영제 중평 6년(189) 3월 1일에 죽었다(崩). 이 후 나라사람들이 龜旨의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고, 그녀를 잊지 못하여 왕후가 처음 배에서 내려 배를 매어둔 나룻가의 마을을 주포촌이라고 이름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산마루를 綾峴이라 하고 꼭

81)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144쪽.

82) 初無建祠 致祭之事 只有廣壤堂 而爲巫覡 禱養之場矣 嘉靖丙戌 牧使臣李壽童 始爲築壇於穴傍 使乙那子孫 每於仲冬 行祭是白如可 …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耽羅星主遺事』, 627-635쪽); 장주근, 1989, 앞의 논문, 72-73쪽에서 재인용, 77쪽.

83) 廣壤堂: 주 남쪽 한라 護國神祠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漢拏山神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에 宋 胡宗旦이 와서 이 땅을 제어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매가 되어서 돛대 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서 종단의 배를 쳐 부서 서쪽 지경 飛揚島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럽고 이상함을 포창하여 食邑을 주고 廣壤王을 봉하고 해마다 좃과 폐백을 내려 제사하였고, 본조에서는 본음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였다.” 하였다. ○ 상고하건대 호종단이 와서 고려에 벼슬이 起居舍人에 이르고 죽었으니, 와서 땅을 제어하다가 배가 침몰되었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84) 장주근, 앞의 논문, 1989, 74-77쪽.

85)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143-144쪽.

86)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 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담라문화』 13, 1993, 210-211쪽.

두서니빛 깃발이 나타나 들어온 바닷가를 旗出邊이라고 하였다.⁸⁷⁾ 8대 질지왕은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장소에 王后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⁸⁸⁾ 이로 볼 때 허황옥은 죽은 이후 금관가야인에게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녀에 대한 추숭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⁹⁾ 이 중 질지왕이 수로왕과 합혼한 곳에 세웠다는 왕후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首露王夫人祠를 절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⁹⁰⁾ 알영은 시조와 함께 二聖으로 여겨졌는데, ‘이 때[時]’는 신라 중대 이후로 알영은 시조와 함께 여전히 추숭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¹⁾

유화는 태후묘 뿐만 아니라 隧神祭, 扶餘神廟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고구려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동명왕 14년(서기전 24) 8월에 동명왕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지내고 神廟를 세웠다고 한다. 태조왕은 왕 69년(121) 10월에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지내고 있다.⁹²⁾ 태후묘가 ‘동명왕의 모후’에 대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태조왕대 이후 주몽을 국조로 하는 국조의식이 성립되면서 유화는 국모로 여겨졌고 그녀에 대한 제사는 수신제에서 이루어졌다.⁹³⁾ 수신제는 유화의 주몽 잉태와 출산 신화를 압록강 가에서 재현한 의례였다. 유화는 부여족의 공동 시조를 낳았기 때문에 부여신으로도 불려졌고, 부여신묘에서 그 제사가 행해졌다.⁹⁴⁾ 부여신은 ‘刻木한 부인상’으로 나타나며 木隧로 나타난 수신보다는

87)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媵臣泉府卿申輔...”. 이와 관련된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김태식, 「가락국기 소제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26-27쪽 참고.

88)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銓知王 一云金銓王 元嘉二十八年即位 明年爲世祖 許黃玉王后 奉資冥福於初與世祖合御之地 創寺曰王后寺”.

89)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31-32쪽.

90) 권주현,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2009, 55쪽. 한편 사당에서 절로 전환된 것은 신라 중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권주현,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2011, 66쪽). 이상은 채미하, 2016, 앞의 논문, 20~21쪽.

91) 채미하, 앞의 논문, 2014, 187-188쪽 참고.

92)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42-344쪽 참고.

93) 수신제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 『구당서』·『신당서』·『한원』에 보인다.

구체적인 것으로 고구려 국모 뿐만 아니라 부여족 전체의 어머니로 추송되었다.⁹⁵⁾ 이처럼 유화는 죽은 이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고구려 말에는 주몽⁹⁶⁾과 마찬가지로 유화에 대한 신앙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었다.⁹⁷⁾ 유화는 수신의 성격 뿐만 아니라 농업신적 성격도 띄면서 ‘신모’로 불려졌다.⁹⁸⁾

선도산은 통일 이전 신라 오악의 하나였으며,⁹⁹⁾ 『삼국유사』 천사옥대조를 보면 진평왕대 鎮祐邦國하는 靈異가 많아 나라가 건립된 이래 언제나 三祀의 하나였고, 그 서열은 群望의 위에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 서술, 선도산은 車梁에 있었다고 한다.¹⁰⁰⁾ 이로 볼 때 선도산은 신라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국가제사의 대상이었고 진평왕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최고의 신성산악이었다가¹⁰¹⁾ 통일 이후 신라 국가제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도산 신모는 신라 경명왕대 왕의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어 봉작을 받기도 하였다.¹⁰²⁾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가야 마지막 왕자의 세계를 정견모주로부터 기

94) 부여신묘과 관련해서는 『복사』·『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95)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논문, 363-364쪽 참고.

96)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및 『주서』 49, 열전 41, 이역 상 고려; 『책부원귀』 369, 장수부 공취 2 이적 참고.

97)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5년, “東明王母塑像 泣血三日” 및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참조. 이상은 재미하, 앞의 논문, 2006, 365쪽.

98) 이상은 재미하, 앞의 논문, 2006 및 앞의 논문, 앞의 논문, 2016, 18~19쪽 및 20쪽 참고.

99)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산천조에는 토함산을 동악, 금강산을 북악, 함월산을 남악, 선도산을 서연산(서악)이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 41, 열전 1, 김유신(상)에는 중악 단석산이 보인다.

100)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西述(車梁)”

101) 강영경은 앞의 논문, 2012, 57쪽에서 신라의 국가성장이 6촌장의 합의체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신라왕은 박·석·김 3성의 교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도산 신모는 국모신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거나 고구려와 백제처럼 거국적인 숭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사회에서 박씨왕계의 사회적 위치와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선도산 신모의 위치는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102) 『삼국유사』 5, 감통 7, 선도성모수희불사,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이상은 재미하, 앞의 논문, 2016, 22쪽.

역한 것은 정견모주가 조상신으로의 권능을 대가야 멸망 직전까지도 유지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⁰³⁾ 해인사의 정견천왕사에 모셔진 정견은 본래 대가야의 왕후로 죽어서 가야산 산신이 되었다고 하며¹⁰⁴⁾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이후 통일 이후 신라의 명산대천제사 중 소사에 가량악이 편제되었다.¹⁰⁵⁾

백제에서는 온조왕 13년(서기전 6) 2월 왕모 소서노가 죽자 온조왕 17년 4월에 묘를 세워 국모를 제사하였다고 한다.¹⁰⁶⁾ 온조왕은 왕모 소서노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국모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니 국세가 안전하지 못해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겠다고 하였다.¹⁰⁷⁾ 아마도 이 때부터 소서노는 국모로 여겨졌고 국모묘에 대한 건립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모묘를 건립한 이후 그에 대한 제사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소서노를 국모묘에서 제사지냈을 것이다.¹⁰⁸⁾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녀는 왕명으로 3신인과 혼인하기 위해 탐라로 온 이주자로, 나이순으로 배필이 정해졌다는 것에서 제주 신화에서 발견되는 독립적인 여신들과는 달리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¹⁰⁹⁾ 때문에 3신녀는 3신인의 배필로만 역할이 고정되어 탐라국의 母神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고 한다.¹¹⁰⁾ 하지만 3신녀는 오곡종자와 가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

103) 서철원, 「대가야 건국신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이와 관련해서 나희라, 앞의 논문, 2009, 126~127쪽도 참고.

104) 천혜숙은 앞의 논문, 2002, 12~13쪽에서 정견모주를 신라의 선도산 신모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105)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996, 11쪽과 16쪽. 그리고 김태식은 16-17쪽에서 대가야군 소재 推心의 主神은 대가야시조 伊珍阿歧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상은 재미하, 앞의 논문, 2016, 25쪽.

106)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3년, “春二月 王母薨 年六十一歲”;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7년,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107) 『삼국사기』 21, 백제본기 1, 시조 온조왕 13년,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圉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郡於彼 以圖久安之計”.

108) 이상은 재미하, 앞의 논문, 2016, 19쪽.

109) 전영준,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性的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2016, 519쪽;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2017, 60-61쪽.

110) 강만생 외, 『제주여성사』 I, 81쪽.

켰다.¹¹¹⁾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비와 시조모는 농업신, 곡모신의 성격을 띄었다.¹¹²⁾ 그렇다면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가 오곡종자를 뿌리고 우마를 키우고 풍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모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¹³⁾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대지는 살아 있는 형태를 자신의 본질로부터 끌어내어 발생시킨다. 대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대지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생명이 부여되며, 대지로 돌아간 모든 것은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¹¹⁴⁾ 동·서양의 고대 신화와 의례의 유형을 보면 대지는 우주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만물을 낳고 열매를 맺는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¹¹⁵⁾ 농경사회에서 대지는 어머니로 이해되었으며 점차 지모신은 경작과 수확 즉 농경의 여신으로 대체되어갔다.¹¹⁶⁾

3신녀는 오곡종자를 가져온 풍요신격의 의미를 지니며 3신녀의 곡모신적 성격은 선도산 신모나 유화처럼, 신모 혹은 성모로 숭앙되었을 것이다.¹¹⁷⁾ 그리고 3신녀의 도래일에 맞추어 풍요신격을 맞이하는 의례를 1년에 한 번 거행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였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는 2월 영등달에 영등 굿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바다를 건너 온 풍요신격에 대한 의례로 신명은 대체로 영등할망이다. 영등 굿이 바다에서 내방하는 여신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의 의례 역시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한다. 이 의례와 관련해서 가락국기의 ‘戲樂思慕之事’가 관심을 끄는데, 이것은 望山島에서 古浦까지 긴장한 남자들이 좌우편으로 나누어 배를 노를 저어 경주를 하는 것으로, 유천간과 신귀간이 허황옥을 맞이할 때의 신화적 사실을 재연한 경조행사이다.¹¹⁸⁾ 제주의 영등 굿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영등신

111)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31-32쪽.

112) 장지훈,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58·59, 1999, 81쪽; 한영화,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58·59, 1999, 208~215쪽 및 앞의 주 1) 참고.

113) 강현정, 앞의 논문, 2017, 60-61쪽.

114)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사개론』, 1993, 55쪽.

115) 멀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993, 230쪽 및 249-250쪽.

116) 멀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993, 235쪽.

117)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147-148쪽.

118) 현용준, 앞의 논문, 1993, 214-215쪽도 참고.

을 맞이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 먼 곳으로 영등신은 배송하는 의례를 행한다.¹¹⁹⁾

V. 맺음말

본 논문은 탐라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탐라건국신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본 것이다. 탐라 건국신화는 영주지계와 고려사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상 용출한 3신인과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혼인한다. 3신인이 등장한 것은 한국 고대 건국 시조가 등장하던 사회보다 앞선 사회였으며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한다.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3신인이 탄강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업·개국·건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시조가 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시조비를 맞이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사회의 변화는 주로 남성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바다를 통해 이주한 탈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이주한 인물은 3신인이 아닌 3신녀였고 3신녀의 출현으로 수립사회였던 탐라 사회는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했다.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같으며 함에 담겨 온 것은 탈해 신화와 비교된다. 3신녀는 탈해와 같은 卵生은 아니었지만, 함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도 물을 담고 있는 공간인 강과 정이 등장하는데, 유희와 알영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다, 강과 정은 탐라 건국신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여성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물의 기본적인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라 건국신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여성신은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119)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7-8쪽. 영등굿에 대해 현용준, 앞의 논문, 1993, 214-215쪽도 참고.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에 대한 추송은 16세기 이전까지는 광양당에서 무격에 의해 무속적인 제사로 행해졌지만, 이후 유교적 의례로 변화였다. 3신녀는 나이 순서로 3신인과 혼인하는데, 이것은 제주 신화에서 발견되는 독립적인 여신들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3신녀가 오곡종자를 뿌리고 우마를 키운다는 점에서 풍요를 담당하는 지모신격에 해당하며, 3신녀의 곡모신적 성격은 선도산 신모나 유화처럼, 신모 혹은 성모로 숭앙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제주 민속의 영등 굿과 연결 지어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과 3신녀의 위상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지배자(시조) 혹은 지배자의 배우자(시조비)가 死後에 추송되어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2017.
- 권주현,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2011.
- _____,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2009.
- 김두진, 「신라 6촌장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 김병곤, 「사로 6촌의 출자와 촌장의 사회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_____,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 _____, 「중국 사서에 나타난 백제 시조관과 시국자 구태」,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 김선주,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 _____,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2010.
- 김태식, 「가락국기 소개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996.
- 나희라,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2009.
-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 10, 전남대, 1981.
-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사개론』, 1993.
- 武田幸男, 「始祖廟記事と高句麗王系」, 『東方學會立50周年記念東方學論集』, 東方學會, 1997.
-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 서철원, 「대가야 건국신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 宣釘奎, 「하백신화고」, 『중국문학연구』 10, 2004.
-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0.
- 양성필, 「난생신화의 케짜신화의 상관성 고찰」, 『탐라문화』 35, 2009.
-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2012.
- 袁軻, 『中國神話通考』, 巴蜀書社, 1993.
-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7, 1996.
- 윤철중, 「탈해신화의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7.
- 이종대,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 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선청어문-의민 이두현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8, 1989.
- 장지훈,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1999.
-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 _____,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1987.
- 전영준,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性的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2016.
- 田中通彦, 「高句麗の信仰と祭祀」,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念論集 歴史における民衆と文化』, 圖書刊行會, 1982.
-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説-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2006.
- 조동일, 「시조도래 건국의 중세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조현설,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2002.
- _____,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채미하,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2006.
- _____, 「백제의 산천제사와 그 정비」, 『동국사학』 48, 2010 .
- _____,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2011.
- _____,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2014.
- _____, 「한국 고대 神母와 國家祭儀-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 한영화,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1999.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 1994.
- _____,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27, 2005.
- _____,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1.
-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 _____, 「제주도 신화와 의례 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13, 1993.

Abstract

The Role and Status of Three Goddesses in the Birth Myth of Tamla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ing about the role and status of 3 goddesses in the birth myth of Tamla comparing with the ancient birth myth. The story of the birth myth of Tamla is that 3 gods from earth married 3 goddesses who came across the sea and the society changed. In the ancient birth myth in Korea, the progenitor changed the society but in the myth of Tamla, not 3 gods but 3 goddesses did that role.

So the reason 3 goddesses came to Tamla was related to the establishing nation. 3 goddesses' crossing the sea could be compared with Huh Hwangok of Karakguk and Talhae of Silla. Though their births were not out of eggs, they came across the sea contained in going through changes different from descent and after their arrival at Tamla, the society getting food by hunting and gathering changed to the one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In the birth myth in ancient Korea, Yuwha and Alyoung were related with the river and the well. Each the sea, the river, and the well is the space containing water of which inherency is changing ceaselessly and that represents the change of the society. 3 gods and 3 goddesses in Tamla must have been worshipped after their death and this could be compared with that the progenitor and progenitor consort(mother) in the ancient birth myth in Korea were the subjects of the national rites.

* Research Professor in Korea univ.

The worshipping 3 goddesses was a Shamanistic rite but later changed to a confucian ceremony. The fact 3 goddesses brought 5 grains and seeds shows they have the character of mother goddess of grains and they were worshipped as the mother goddess or saint mother like Yuhwa and Seondosan mother goddess in Korean ancient birth myth.

Key words : Tamla, birth myth, 3 gods, 3 goddesses, saint mother

교신: 채미하 03014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7나길 42-4, 가동 102호
(E-mail: mhchai@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4
심사완료일 2018. 01. 30
게재확정일 2018. 01. 31